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형기주*

Sixty Years History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as a Numerical Record

Kie Joo Hyong*

요약 :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 60년의 역사를 그 체제, 예산, 간행물, 회원수, 전공, 논문 등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학회 60년 역사의 시기구분을 시도 한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서구식 근대지리학의 역사는 불과 60년, 대한지리학회 창립(1945년 9월11일)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1960년 IGU 스톡홀름 총회 때, 겨우 국제적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40여년 만에 한국은 제 29차 국제지리학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새천년을 시작하였으니 대한지리학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만큼이나 급성장한 셈이다. 학회의 회원수는 1966년에 불과 116인이었으나 2004년 현재에 약 1000인에 이르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1960년에 단지 2인이었으나 2004년에 388인, 이중에 약 43%는 외국에서 받은 학위이다. 전공별 회원수는 경제·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시·인구지리 분야이다. 최근 10년 동안에 생태지리학을 포함한 자연지리와 지리교육, GIS분야의 전공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한 것은 1963년이지만 이것이 정기간행물이 된 것은 1966년부터이고, 1993년부터 영문판을 포함하여 계절(季刊) 및 격월간(隔月刊)으로 간행되고 있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편수를 보면, 1960~70년대에는 연간 평균 7편, 1980년대에 약 11편, 1990년대에 24편, 새천년에 와서 무려 52편으로 급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논문을 게재할 기회가 많아졌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고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지에 실린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면, 역시 경제·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태학을 포함한 자연지리학 분야, 그리고 도시·인구지리 분야이다. 앞에 지적한 전공 회원수와 함께 논문게재 편수에 있어서도 문화·역사분야, 지리교육 분야, 응용 및 GIS 분야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대한지리학회는 회원수나 그 활동으로 보아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화 되고있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성격을 부여한다면 ①창립과 혼돈기(1945~1959), ②재건기(1960~1969), ③체제정비기(1970~1989), ④약진기(1990~1999), ⑤국제화시기(2000~)로 나눌 수 있다.

주요어 : 급성장, 세계화, 다양화, 시기구분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describe and periodinate the sixty years history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For the purpose, several numerical records concerned with the society were employed.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was established in 1945 as a first academic society in geography. The international participation of Korean geographers started when it applied for the IGU membership in 1959. Next year, Korean's application was approved at the 19th IGC in Stockholm. The 40 years later, Korea came to host the 29th IGC in Seoul. This means that the activity of Korean geographers has been vigorous during the 40 years in accordance with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The number of the society member reached 116 in the latter part of 1960s. It grew steadily from 1970s to 1990s and now amounts to around one thousand. It is believed that such trend i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geographical department and the development of graduate programs during past 40 years in Korea. The number of the advanced degree holders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Douguk University)

was only 2 in 1960, and now reaches 338 among which 166(43%) obtained from the foreign country.

The first issue of the society journal "Geography"-the title was changed to "Journal of the KGS" in 1993-was published in 1963. It has gradually developed into the annual for 1966-1973, the semi-annual for 1974-1990, the quarterly for 1991-1997, and the bi-monthly until 2005. One issue per year has been published in English since 1993. The annual number of papers accepted by the editorial board has increased from 7 in 1960s-1970s to 52 in the new millennium. In terms of the specialty distribution of total 725 papers after 1963, many Korean geographers have been preferable to the field of socio-economic and urban geography as their major, and next histo-cultural and physical geography.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younger geographers are more interested in such diversified fields as ecological geography, socio-historical geography, applied geography concerned with GIS technic, geography education and so on. Such trend is a reflection of the new era which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software, high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others. The sixty years history of the society may be summarized into the five phases of periodization: ① establishment and chaos(1945~1959), ② reconstruction(1960~1969), ③ reorganization(1970~1989), ④ jump and rush(1990~1999), ⑤ globalization(2000~).

Key Words : rapid growth, diversification, globalization, periodization

1. 머리말

대한지리학회가 탄생한지 올해로 60년이다. 예로부터 인생 60년이면 이순(耳順)의 나이요 화갑(華甲)의 나이라 하여, 오래 살아남았음을 뜻하는 수연을 베풀었다. 그러나 세상사(世上事) 60년의 세월을 놓고 보면 이제 큰 물굽이 하나를 돌아선 시점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물굽이를 수도 없이 돌아야 한다. E.H.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이것은 역사란 하나의 완제품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굽이 하나를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대한지리학회가 60년간에 치른 일은 엄청난데. 광복의 기쁨과 함께 1945년에 발족한 「조선지리학회」가 1949년 11월 「대한지리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한 채, 6.25 동란과 전쟁 복구기를 작은 모임으로 어렵게 존립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고, 중화학공업 촉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학회도 그 체제가 재건·정비되고 정기적인 발표회를 열고 학회지를 간헐하게 이르렀는데 이

때가 1960년대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1975년 11월에는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의가 대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그러나 명색이 30년을 회고하는 토론이지만 실지로는 10여년간에 걸친 학문성취를 대상으로 삼은 학술토론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회지 창간호가 1963년에 탄생하였고 1966년에 가서 어렵게 제2호가 명맥을 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각 대학에 지리학과와 지리교육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인가·설립되어 대학의 교수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역시 경쟁적으로 태어난 시기이기도 하다¹⁾. 현재 총 28개 학과에 이르는 지리학 또는 지리교육(사회교육)학과 중에 17개 학과가 이 기간에 태어났고, 석사과정은 9개학과, 지리교육석사과정은 12개학과, 박사과정은 10개학과가 바로 1970~1980년대 인가·설립되었으니 결국 현존하는 석·박사과정의 대부분은 바로 한국경제 고성장시기의 산물인 셈이다.

1970~80년대에 뿌려진 씨는 1990년대의 지리학 인가와 연구 성과의 대약진으로 연결된다. 우선 국내외 박사수와 발표 논문수의 급증은 물론이려니와 각종 국제적 연구행사(심포지엄)의 성공적 수행, 연2회 간행하

던 학술지의 연6회 간행, 여기에 어울리는 학회정관의 개정(법인등록, 투고·심사기준, 회장직선제)등 학회의 현대화·세계화의 노력은 결국 세계지리학대회의 유치와 이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학회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의 발자취를 숫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필자 이외에 다른 한사람이 「한국지리학 60년」을 취급하고, 또 다른 한사람이 「한국지리학의 사회적 기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급하는 발표범위는 「학회 60년사」에 국한되고, 학문자체의 성격이나 질적 수준 등은 논외로 한다. 결국 이 3개 논문을 합치면 「한국의 근대지리학사」가 훌륭하게 엮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위해서 「대한지리학회지」 통권 108책과 「학회보」 86회분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그리고 학회 30주년과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간행된 유인물 및 4회에 걸쳐서 간행된 학회회원명부가 유익하게 동원되었다. 이밖에 한국의 제1세대 지리학자 중에 타계하신 분들의 후손이나 친지들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체제·예산·학회지

현재의 대한지리학회 정관은 총5장 28개조로 구성된 사단법인 정관이다. 이 정관의 최초 모체는 「조선지리학회」 창립총회에서 만들어졌는데 1945년 9월 11일이다. 수송동에 있던 구 중동중학교에서 약 20여명이 모여 정관을 통과시키고 초대회장에 고김도태 선생님(1891~1957.12.26)을 모셨는데 광복 이후 작고하실 때까지 지금의 서울여자상업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셨다.²⁾

학회의 정관은 그 후 14차에 걸쳐서 개정·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정관의 가장 큰 변화는 1988년 11월 14일부터 개정·발효된 회장직선제 개혁, 1997년 1월1일부터 발효된 학회의 사단법인 정관이다. 이것은 우리학회가 이전에 비해서 개방화되고 민주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초창기에는 회장·부회장·간사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1961년부터 회장·부회장·부장(4)·간사(4) 및 약 간명의 이사체제로 운영되었다. 부장과 간사는 총무·

연구·교육·출판의 4개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부와 홍보부를 신설하는 대신에 교육부의 기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하도록 바꿨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수탁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회부설 「지리학연구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국제부를 신설한 가장 큰 이유는 IGU와의 관계가 급선무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한국이IGU에 가입한 것은 1960년 8월13일, IGU 총회가 스톡홀름에서 열린 때, 고김경성 교수가 한국지리학연합회(이봉수 회장)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³⁾ 그 후 1971년에 회칙을 개정하여(1971.5.26) IGU 한국위원회 회장을 대한지리학회 회장이 겸임토록하고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 사무국장을 회장이 임명하여 왔었다. 1970년대 이후 대한지리학회 국제부장이 IGU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대한지리학회 이사가 IGU 한국위원회 평의원을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때 IGU에 납부하는 회비를 둘러싸고 IGU 한국위원회 회장과 대한지리학회 회장간에 생겼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그런데, 대한지리학회장이 IGU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하는 그림은 지리학 인구가 적고 학회의 규모와 기능이 보잘 것 없었을 때에 그런 모습이다. 지금은 역사·문화, 지리교육, 경제, 도시, 지형, 관광, 여성, 지역지리 등 학회 이름으로 가동되고 있는 공동체가 10개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대로 각 공동체가 모여서 IGU 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장도 따로 임명해야 될것이다.⁴⁾ 학회가 선진화되었다면 마땅히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1960년대, 학회의 이사수는 10인내외이었으나, 70년대에 20인 내외, 80년대에 30인 내외, 2003년부터 50인 내외로 확대되어 있다. 그만큼 학회의 몸체가 확대되었음을 반영한다.

학회의 예산에 관해서는 옛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예산기록은 1987년도 예산인데 당시의 화폐가치로 약 1651만원이었다. 확실치는 않으나 필자가 회장을 하던 1970년대 후반의 예산은 약 400~500만원 수준이었던 것 같다. 1987년 이후 5년 간격으로 예산규모를 기록한 것이 표-1이다. 1992

표 1. 학회 예산의 변화

연도	단위, 천원			
	A. 경상가	B. 데프레트가	C. 회비	C/A(%)
1987	16,510	16,510	4,740	28.7
1992	22,550	15,500	6,710	29.7
1997	51,610	38,088	18,900	36.6
2004	120,048	98,387	32,560	27.1

주 : ① 1997년은 IGC 관련 비용 2억2390만원을 제거한 금액이고 2004년은 적립금과 각종기금 8556만원을 제거한 액수이다.
 ② 데프레트는 각 연도의 예산액을 1987=100 소비자물가 지수로 환산한 액수.

년에 2,255만원, 1997년에 5,161만원, 그리고 2004년의 그것은 무려 1억2천여만원의 예산규모로 확대되어 있다. 이것을 1987년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데프레트하면 1992년의 예산규모는 1987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고 1997년의 그것은 1992년의 그것보다 두배 이상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의 그것은 1997년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역시 2.5배로 대폭 증대된 모습이다. 역시, 1990년대의 우리학회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된 만큼이나 큰 살림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것은 각종 지원이 많아졌고 1992년에 한국이 2000년 세계지리학회 개최국으로 선정되면서 그 준비에 총력을 기울린 결과이며 동시에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속 효과로도 해석된다.

매년 총예산중에 회원들이 부담하는 학회비는 얼마나 될까? 1970년대까지는 학회의 경상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회원수가 적은 위에 실제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수가 50%수준에 지나지 않았고,⁵⁾ 연2회의 학회지 인쇄비 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고교 지리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이 소속 출판사에 부탁하여 학회지 인쇄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가 경상예산에 접하는 비중은 30%를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1997년은 2000년 세계지리학회(IGU 2000)의 준비에 막바지였기로 회원의 회비 부담이 36.6%나 되었다.

학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w은 학문을 즐기는 학자들 상호간에 학회지를 통해서 정보

표 2. 시기별 학회지 발간

시기	간행형태	비고
1963	창간호	
1963~66	부정기 간행	1966년 제2호, 64, 65년 결
1966~73	연간 1회	1969년 최초 투고 규정, 68년 결
1974~90	연간 2회	1974, 1980년 투고규정 개혁
1991~92	연간 3회	
1993~97	연간 4회	1회는 영문판, 1994년 학회지명 변경
1998~02	연간 5회	
2003~	연간 6회	

※ 주 : ① 1997년 이후 학회지에 게재했던 학회소식란을 제거
 ② 대한지리학회 회보를 발간하여 학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바 총 87호가 나와 있다.

를 교류하고 서로 인정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학회지의 양적·질적 평가는 곧 학회와 그 구성원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1945년에 창립된 우리 학회가 최초의 학회지를 간행한 것은 실로 18년 만이다. 그리고 1964~65년을 공백으로 보내고 1966년에서 1973년까지 일년에 한편씩 간행하였다. 따라서 학회창립 이후 21년만에 정기간행물의 형식을 갖춘셈이다. 연간 두권씩 간행한 것이 16년간(1974~90) 계속되다가 1990년대에 4회(계간)내지 5회,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연간 6회(격월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것은 대학원 석·박사과정 인구와 해외유학생 등 연구인력이 급증했고,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가 취업·승진에 중요한 척도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1969년 6월에 최초의 투고규정을 제정했고, 1974년과 1980년에 비교적 선진화된 투고규정으로 개혁을 하였다. 1990년대에 들면서 학회지에 대한 정부의 까다로운 평가와 보조가 행하여지고, 등재지 평가가 곧 교수들의 승진이나 연구비 수혜와 연결됨으로서 우리 학회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5회의 투고규정 개정(총 13차)을 단행하였다.

한편, 1994년부터 학회지명을 「地理學」에서 「대한지리학회지」로 바꾸고 1993년 이후 계간지 중의 하나는 영문판을 내어 세계화시대의 학회로서 선진 여러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결국, 1963년에 최초의 학술지가 간행된지 30년만에 「대한지리학회지」는 계

간지(季刊誌), 40년만에 격월간지(隔月刊誌)가 되어 총통권(總通卷) 108호(별책호 포함)에 이르는 놀라운 변혁과 초고속 성장이 우리학회의 위상이다.

3. 회원수 · 전공 · 학위

회원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자료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회지에 이름과 근무처만 수록한 자료(1966, 1974, 1978)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별도 명부로 간행하여 그속에 최종학력, 학위, 전공, 근무처 등 각종 개인 정보를 수록한 자료(1994, 2000, 2002, 2004)가 있다. 1985년과 1987년은 전체 회원수만을 찾아 적었을 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⁶⁾

대한지리학회 회원수는 1966년에 116명, 1974년과 1978년에는 각각 320명과 458명으로 집계된다. 1980년대 역시 총회원수는 300~450명 수준이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면 회원수가 800~1000명 선으로 급증한다. 1980년대까지는 등록회원이라 하더라도 학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숫자는 50% 수준에 불과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회원수는 숫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각 대학의 대학원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교육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설립·인가가 많았던 시기였다.

학회회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지리공부를 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원생이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1970~1980년대에 설립·인가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학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자연적으로 1990년대가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1990년대부터 회원수가 급증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밖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급증한 회원수는 세계지리학대회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에 기인할 수도 있고, 학회장 선거의 과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966년에 겨우 116명이던 우리의 회원수가 지금은 거의 1000명에 이르고, 단체회원도 86명이나 되는 큰 덩어리로 급변하여 있다. 이러한 급증현상을 보다 깊고 섬세한 분석을 통해서 그 요인이 해명되야 한국의 지리학 발전에 유익한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1994년과 2004년의 회원명부에 실려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학위별 회원분포를 집계·분석하였다. 1994년의 총회원수는 775명, 2004년의 그것은 998명이지만 학위를 명시하지 않은 회원수가 1994년은 306명, 2004년은 45명이다. 따라서 자료 처리가 가능한 회원수만을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학위별 회원수 분포

단위 : 인

학위별	1994년	2004년
학사	66	232
석사	207	333
박사	196	388
국내	111	222
국외	85	166
일본	28	35
미국	36	77
영국	3	16
독일	10	18
프랑스	7	12
기타	1	8
계	469(306명 미상)	953(45명 미상)

주 : 회원명부 1994년, 2004년 판에 의한. 기타는 캐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가 포함

(표 3), 총회원수 추이(1966~2004)

	회원총수(인)	단체회원수(인)	명부발간
1966	116	N.A	회지에 게재
1974	320	"	"
1978	458	"	"
1985	303	"	?
1987	445	"	1987.6.
1994	775	68	1994.10
2000	748	69	2000.7
2002	852	61	2002.9
2004	998	86	2004.12

대한지리학회의 회원은 거의가 석사급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학사학위만의 소지자는 1994년에 14%, 2004년에 24%에 불과하다.⁷⁾ 1960년대에는 몇 명 안되었던 박사 소지자가 1994년에 196명, 2004년에 388명에 이르러 각각 확인된 총회원수의 40%를 상회한다. 이것은 새천년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고학력 사회요, 특히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총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외국에서 받은 회원은 1994년이나 2004년이나 간에 약 42~43% 내외로서 국내보다 약간 낮다.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 수를 보면 역시 미국과 일본에 기울어 있는데 2004년 현재에 해외에서 취득한 박사의 47%를 미국, 21%를 일본이 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학위가 7명, 미국이 41명, 영국이 13명, 독일 8명, 프랑스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한국의 학제는 미국편향이 현저하다. 최근에 영국 학위가 급속히 많아지고 일본이 90년대 이전에 비해서 급감한 현상도 괄목되는 현상이다.

전공별 회원수를 분석하기 위해 학회지 13호(1976.6), 즉 학회 30주년 기념 특집호에 실려있는 전공분류를 참조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의 전공

분류와 새천년의 그것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시대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생학문은 새로 삽입하되 기존의 전공은 크게 손을 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토양지리학은 지형학 부류에 넣고, 생태학과 식생지리학은 기후학에 넣어서 집계하였다.
- ② 사회지리학은 역사·문화지리 분야에 넣을 수 있으나 「사회·경제사」란 의미를 강조하여이를 경제지리 분야와 합계하였다.
- ③ 지지와 응용지리 분야에 지역개발 분야를 합계 처리 했다.
- ④ 지도학 분야에 항공사진, 원격탐사, GIS분야를 합계 처리했고, 관광지리 분야를 따로 신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4년 775명, 2004년 998명 회원의 전공을 분류 집계한 것이 표-5이다. 여기에서도 전공에 응답하지 않은 회원이 1994년 304명, 2004년에 118명이나 있는데 대체로 이들은, ① 전공을 밝히기가 어려운 초·중고 교원일 경우, ② 대학원 재학생이지만 아직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회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994년도에는 경제지리(사회지리 포함) 전공자가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도시지리(촌락·인구포함)전공,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형학(토양지리학 포함), 네 번째가 문화·역사지리학 전공자 순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실용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문제제기가 많은 분야에 회원수가 치우쳐 있는 것 같고, 또한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의 전공별 회원수 분포를 보아도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경제와 도시지리 분야, 지리교육 분야, GIS 분야, 관광 분야 등이 새천년에 들어서 역시 매력적인 분야로 들어나 있다. 문화·역사지리 분야는 1994~2004년간에 약53%의 회원수 증가이지만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성향으로 보아서 장차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GIS 분야는 지난 10년간에 약8배의 회원수 증가현상으로 보아서 가장 많이 취업할 수 있었던 분야로 생각된다.

지리교육 분야는 1994년에 38명이던 것이 2004년에

표 5. 전공별 회원수 분포

단위 : 인

	1994년	2004년
지형·토양	66	100
기후·식생	31	82
촌락·도시·인구	97	135
경제·사회	122	181
문화·역사	58	89
지리교육	38	165
지지·응용	29	35
지도·GIS	7	54
관광	17	30
정치	3	5
학사·방법론	3	4
계	471(304명은 미상)	880(118명은 미상)

주 : 1994년 총회원수 775명, 2004년 998명

165명으로 확대되어 약3배 이상의 증가이다. 지리교육 분야는 이렇게 해석된다. 첫째로, 중·고교교사들이 승진과 평점에 유리하도록 교육대학원을 선택하고 동시에 지리교육을 전공으로 택한다는것, 둘째로, 전국에는 지리교육학과와 교육대학의 수가 많고, 여기에는 반드시 지리교육 전공교수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다른 전공에 비해서 취업의 기회가 많다고 판단한 결과가 지리교육을 전공으로 선호한 회원수의 급증으로 나타난 것 같다.

4. 발표 · 토론 · 게재논문

1) 춘 · 추 발표회와 지지편찬

대체로 어느학회나 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학술지를 간행하는 것이 학회의 주요 사업이다. 정기적인 모임은 회원 상호간에 침묵을 도모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견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일이 주무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활자화한 것이 학술지이고, 이의 질과 양이 국가발전수준의 척도가 된다.

1960년대 이전에는 광복과 전쟁의 혼란속에서 부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었고 회원의 대부분은 중학교 교사들이었다.⁸⁾ 1947년 4월 노도양 선생님의 발표논문 "F.Ratzel의 자연환경론 재검토" 이외는 학술 발표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창립회의에 참석하였던 회원중에 현재 생존하여 계신 제1세대 지리학자는 노도양·박관섭 두분 뿐이다.⁹⁾ 당시의 모임이 중학교 교사중심이였기로 논의의 주제는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교수요목」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로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었던 것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참관한 학회 모임은 1955년 10월, 당시 서울중학교에서 거행된 총회로서 서울사대 학생들이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필자 역시 준회원 신분이었다. 수복 직후라 학생들을 제외하면 정회원은 20명도 채 안되었던 같다. 회장에 최복현 교수(제2대), 부회장에 육지수 교수, 그리고 간사(지금의 상임이사)가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역시 연구발표에 대

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¹⁰⁾

1960년 8월 13일 IGU 스톡홀름 대회에서 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가입되고¹¹⁾, 12월 18일에 4인의 대학교수(박노식·이찬·이한순·이정면)가 서울문리대 강당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학술대회 형태로는 대한민국 최초 지리학 논문 발표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¹²⁾ 그 이유는 이전에도 발표는 있었으나 발표 후에 학술지에 게재된 일이 없었고, 발표자들 대부분이 중학교 교사 아니면 대학원 재학생이었기 때문이다.

학술발표 대회는 1961년 1월에 지리교사의 강습을 계기로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5·16 군사 구테타로 인해서 집회가 금지되어 일시 중단 되었다. 1962년 이후에는 춘계·추계로 나누어 계속되었으며 결국, 60년대에 발표된 총논문 편수는 69편으로 결산된다. 점차 학회의 체제가 정돈되고 논문발표자도 많아지고 있었을뿐 아니라 1969년에는 최초의 투고규정이 만들어 졌다.

1970년대는 우리의 경제가 수출주도형 고성장시대를 달리고 있었던 시대이고, 지리학과(지리교육과 포함)가 9개교에 신설된 시대로서 춘·추학회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70년대를 통해서 1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만, 1972년 가을학회가 우수령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뿐이다.

1970년에는 새롭게 다듬어진 학회 회칙이 발효되고,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7편의 분과별 주제를 가지고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학회지 「지리학」13호는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며, 학회 최초의 학술토론회라는 점에서 한국의 지리학 발전의 한 계기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역시 대한지리학회의 발전 속도가 한국경제성장과 잘 어울리면서 행진할 시기로서 춘·추학회에서 발표된 총논문 편수는 237편에 이른다. 이것은 70년대의 성과를 53% 초과한 것으로 연간평균으로 보아 60년대가 7편, 70년대가 15편이라면 80년대의 그것은 약 24편이나 되는 숫자이다. 따라서 1984년에는 발표장소를 전국 각지의 지방대학에서 개최하되 인문·자연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987년에는 구도지리를 강조하는 학회 두 번째의 심포지움이 거행되었다.¹³⁾

표 6. 춘·추학회 발표 논문수, 1960~2004

연도	춘	추	계	비고
1960	•	•	4	IGU 가입
1961	2	•	2	5.16으로 중단
1962	7	3	10	
1963	•	•	2	학회지 창간
1964	5	3	8	
1965	8	5	13	
1966	•	•	•	
1967	•	•	•	
1968	7	4	11	
1969	12	7	19	투고 규정 제정
1960~1969			69	
1970	13	9	22	1957.5.17회칙을 개정 발효 (1970.1.1)
1971	9	8	17	
1972	6	•	6	위수령으로 중단
1973	10	7	17	
1974	•	7	7	
1975	6	5	11	30주년 기념(7)
1976	6	7	13	
1977	7	11	18	
1978	7	8	15	
1979	11	12	24	
1970~1979			150	
1980	•	11	11	「한국지리」계약·집필
1981	12	5	17	
1982	10	10	20	
1983	12	7	19	
1984	9	21	30	자연·인문 나누어 발표
1985	15	16	31	
1986	13	10	23	
1987	21	11	31	심포지엄(3)
1988	9	17	26	
1989	16	14	30	
1980~1989			237	
1990	•	•	•	
1991	18	•	18	심포지움 (3) (3) (2)
1992	18	9	27	IGC 한국유치
1993	9	17	26	학회지 연4회
1994	14	14	28	학회지 명칭 개정
1995	16	8	24	50주년 기념(24)
1996	19	19	38	법인등록
1997	22	12	34	심포지엄(6)
1998	21	•	•	학회지 연5회
1999	21	40	61	
1990~1999			277	
2000	20	14	34	세계지리학 대회
2001	42	32	74	사무실구입·이사
2002	50	31	81	
2003	47	47	94	학회지 연6회 한국지리지 출판 심포지엄(3)
2004	61	44	105	한국지리지 출판

주 : ① 1963년에는 춘추 발표회가 없었고, 이사회에서 석사논문을 발표했다.

② 1972년 추계 발표회는 위수령(1972.10.17)으로 집회가 불허되었다.

③ ()는 발표 논문숫자

④ 1980년 춘계는 광주 민주화항쟁으로 중단되다.

한편, 1980년대에는 학회 최초로 정부용역사업이 체결되었는데 「한국지지」 총론편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호남, 영남, 서울·경기, 등 총6권의 저서가 「국립지리원」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관찬지지 이후 최초의 큰 사업으로서 학회 여러회원들의 분담·집필로 완성된 사업이다.

1980년대를 학회 발표회의 지방화 시대, 「한국지지」의 완성시대라면 1990년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대로서 한국지리학의 약진시대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1992년에 「IGC 2000」을 서울에 유치했고, 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을 뿐 아니라 2000년 세계지리학 대회를 대비해서 각종 국제적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학회지 간

행도 계간(季刊)에서 격월간(隔月刊)으로 확대되니 학회에 논문발표를 신청한 건수도 90년대에 총277건에 이른다. 1990~99년은 과연 우리 지리학회의 “질풍노도의 시대”로 명명할 만하다.

대한지리학회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1992년이후 준비하여왔던 「세계지리학회」를 대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루어냈다. 이것은 학회 60년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실로서 대한지리학회의 위상을 선진 대열에 끌어 올리고, 지리학을 대중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쾌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조직위원회 회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단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Living with Diversity”라는 화두로 2000년 8월 15~17일에 걸친 이 대행사에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표 7. 대한지리학회 학술토론 대회 요약

연월일	주제명	논문수	발표자
1975.11.30	학회 30년 회고와 전망(통권No.13)	7	박노식(박동원), 김연옥, 강대현, 형기주, 노도양(장보용), 정장호(조동규)
1987.3.12	국학으로서 지리학	3	형기주, 박영한, 황재기
1991.4.20	고산자 김정호 사상의 현대적 조명	3	이상태, 원경렬, 양보경
1991.10.25	21세기를 향한 지리교육	3	황재기, 서찬기, 시노하라
1991.11.23	국민교육으로서 국토교육	2	권혁재, 류우익
1995.10.13 ~14	창립 50주년 기념 1. 분단국토의 현실과 통일 국토의 미래 2. 21세기 한국지리학의 도전	3 2	이건영, Dege, 류우익 E.Elhers, J.Olson
	3. 한국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12	오경섭, 이현영, 손일, 박삼옥, 남영우, 이문중, 류제현, 최병두, 임택순, 유근배, 남상준, 이희연
1996.12.7	제7차 교육과정의 체제 개선방향	1	유재명
1997.10.18	지리학과 지역연구	6	W.Moran, R.F.Abler, A.Buttimer, 형기주, 박찬석, 홍철
2000.8.15 ~17	세계지리학회 "Living with Diversity"	1200	80개국 2,350명 참가. 27개 분과회의, 5개 심포지움, 플레너리 6개 세션, 국내외 답사, 각종 문화·전시 행사
2001.12.7	북한국토의 이해와 개발	5	공우석, 이광, 어당, 서문길, 이상준
2003.2.11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	3	안성호, 김형국, 권용우
2005.1.10	신행정수도 추진과정의 교훈과 대안 모색	4	주성재, 이창기, 최병두, 이원호
2005.4.14	독도의 지정학	4	형기주, 양보경, 한현철, 이기석

2350명의 지리학자가 참가했고 27개 분과회의, 5개 심포지엄, 플레너리 6개 세션, 국내의 답사, 각종 전시·문화행사가 대성화리에 열렸고 논문 발표만 1200편에 이른다.

대한지리학에 미치는 「세계지리학회」의 직·간접적 효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춘·추학회에 제출된 논문 편수의 급증현상이다. 1990년대에 연간 평균 27.7편이던 논문수가 새천년부터는 연평균 77.6편(2000~2004년)이라는 놀라운 증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10년 동안에 총277편의 논문이 춘·추학회에서 발표되었으나 새천년에 와서는 불과 5년동안에 338편이나 쇄도했으므로 돌아오는 5년 동안을 가상하면 2000~2010년간 실로 6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될것으로 예상된다.

서기 2000년의 쾌거는 이 밖에도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하는 「한국지리지」의 집필과 각종 국토정책을 비판·조언하는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지리지」의 집필은 1980년대에 이어 두 번째의 사업으로서 2003년에 이미 총청편이 간행되었고, 2004년에는 전라·제주편이 완성되었다. 1980년대에 편찬한 「지지」와 작금에 완성한 「지리지」를 비교할 경우에 국토의 「최근세사」를 훌륭히 엮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세계지리학회」를 통해서 얻어진 간접적 효과로는 한국의 이미지 개선, 지리학에 대한 인식변화, 교직이외의 취업확대, 지리학과 지도에 관한 출판물 수요·공급의 확대 등이다. 1960년, 겨우 IGU에 가입한 한국의 지리학계가 지리학의 올림픽을 치룰 수 있는 위상에 까지 오르는데에 40년이걸렸다. 이것은 선진국 어느나라도 실현하지 못한 기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학술토론 대회(심포지엄)

1975년 11월 30일 학회창립 30주년 기념학술토론회의(심포지엄)를 시작으로 1987년 3월 2일에는 두 번째의 토론회의가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란 주제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학풍으로 보아 「국학」이 강조되고 있었던 분위기와 함께 지리학에

서도 지리학의 전통사상을 재음미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한국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회창립 이후 1980년대까지는 단2회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을 뿐인데 1990년대와 새천년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행사가 무려 10여 차례나 개최되었다. 이것은 단적으로 학회의 살림이 그만큼 넉넉하여 졌다는것, 학회의 활동이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것, 학회의 국내외 위상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표-7은 그간에 개최된 주요 토론회를 정리한것으로서 1990년대에 6회(주제25편), 새천년에는 4회(16편)가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제시된 주제의 성격을 보면 1990년대는 국학과 한국지리, 지리교육, 지역연구 등 국토지리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강화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지를 이루고, 2000년 세계지리학회 예행연습의 성격을 띤 「학회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만 17편의 논문에 이르는 대규모의 토론회의이었다. 더구나 1990년대에 거행된 6회의 토론회의는 2회가 국제적 성격을 띤 토론회의라 주목된다.

새천년에 와서는 「세계지리학회」를 제외하고 4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논제는 북한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 독도문제 등 최근에 이슈가된 시사적 문제를 지리학 쪽에서 취급한 것인데 지리학의 사회적 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한국지리학의 사회화시기」라고도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게재된 논문

춘·추학회나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대한지리학회지」에 모두 게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심사규정이 까다롭고, 또한 「대한지리학회지」 이외의 논문집에 게재할 길이 여러 갈래있기 때문이다.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수를 연별·전공별로 분류·집계한 것이 표-8이다. 학회지가 창간된 1963년 이후부터 1975년 최초의 기념 심포지엄(1975년)이 열렸던 13년 동안 학회지에 실린 총 논문 편수는 71편에 불과했다. 그것도 1960년대에 간행된 학회지 4책(1963, 1966, 1967, 1969년)에 실린 논문은 불과 21

편 뿐이다. 1960년대에 춘·추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69편이므로 가령 학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이 모두 학회지 등재를 희망할 경우 논문의 채택율은 약 30%이다.¹⁴⁾

1960년대에 비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논문 게재 편수가 훨씬 많아졌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양 시기는 각각 100편 내외로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게재논문의 편수가 급증한다. 1990년대의 춘·추학회 발표 논문 편수는 총 277편, 게재 논문 편수는 총 244편으로서 만약에 춘·추학회 발표자 전원이 저들의 논문을 학회지에 등재를 희망했다면 탈락은 불과 33명 뿐이다.

이상과 같은 학회지에 대한 논문 등재의 용량과 공급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60년대는 학회지가 1년 1책이고 그것도 부정기(不定期) 간행이었지만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지리학의 전문인구도 매우 적었다.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지리학과와 신설·인가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지리학 전문인구의 증대로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타임레그가 있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학

회지 간행이 1년 2책이었기에 그런대로 수요·공급에 무리는 없었던 것 같다.¹⁵⁾ 셋째, 1990년대에 와서 학회지 등재논문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설립·인가된 대학·대학원 지리학과 연구인구의 논문게재 수요가 마침 1990년대 즈음에 와서 많아졌고, 이에 따라 학회지의 간행 횟수도 연간 4~5회 까지 증대되었으므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대된 셈이다. 특히, 학술지에 대한 학진(學振)의 평가가 교수 승진이나 연구비 수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위의 평가를 받은 「대한지리학회지」에의 게재가 쇄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1990년대 게재 논문 편수의 급속한 증대 요인 중에 1992년 결정된 IGC 2000의 준비과정에서 받은 자극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지리학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새천년에는 논문게재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2000~2004년 동안에 벌써 260여편의 논문이 이미 학회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1990년대 10년 동안의 논문게재 실적을 불과 5년 동안에 앞당겨 이룩한 것과 맞먹는 숫자에 해당한다.

어떤 전공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는지 표-8을 보

표 8. 시기별 전공별 학회지 발표 논문수

대한지리 학회지 통권1~108호

전공 \ 기간	'63~'75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	계
지형·지질·토양	9	12	5	11	10	26	49	8	130
기후·식생·생태	8	5	3	9	7	17	23	1	73
촌락·도시·인구	14	12	13	14	15	21	28	1	118
경제·사회	17	7	18	12	20	37	54	8	173
문화·역사	8	3	7	4	10	10	27	2	71
지리교육	1	1			13	9	27	2	53
지역개발·응용		1	1	2	8	15	12		39
지도·사진·GIS	2	1	3		7	3	7		23
관광				1	1		6	1	9
정치	2				2	2	3		9
학사·방법론	3	1		3	2	9	2		20
기타	7								7
계	71	43	50	56	95	149	238	23	725

주 : 1963~75년 집계는 “지리학 30년 회고와 전망”, (이찬), 지리학 13호, 1976.9.5 참조,
75년 이후는 대한지리학회지 통권 108권을 필자가 분류·집계함. 단, 심포지엄 주제는 제외

면서 논문계제의 시기별·전공별 분포를 알아 보자. 1970년대까지는 지형학관계 논문과 촌락·도시·인구 관계 논문이 가장 많았다. 1980년대에 와서는 경제·도시지리학 논문 편수가 급증하고, 지형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중화학공업의 고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도시 및 산업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경제·도시분야는 물론이고 지역개발을 비롯한 지리학의 응용분야도 게재논문 편수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또다시 지형·기후·생태 등 자연지리 분야도 다시 급증하고 있는바 이것은 생태환경이나 재해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천년에 와서도 경제·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지리학 논문이 주종을 이루면서 동시에 문화·역사지리, 지리교육 분야의 논문편수가 많아지고 있다. 즉, 점차 전공분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취업이 용이한 분야에의 쏠림현상이 팔목되는 것 같다.

학회지가 창간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42년 동안의 학회지 등재 논문편수를 총취합하여 보면, 경제분야가 173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형학 분야(130편), 그리고 도시·인구 분야(118편)와 기후·생태지리 분야(73편)의 순서이다. 매우 팔목되는 것은 새천년에 와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 오늘의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자연훼손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5. 맺는말

이 글은 「대한지리학회」가 걸어온 60년의 발자취를 숫자를 통해서 일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시도한 내용이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20여명의 창립회원이 「조선지리학회」란 이름으로 초라하게 출발한 우리학회가 지금은 회원수 1,000여명에, 임원진 만으로도 76명에 이르고, 한해의 예산이 1억2천여만원이나 쓰이는 큰 살림으로 변하여 있다. 1963년에 창간호를 낸 학회지는 한

동안 부정기 간행물이었으나 지금은 연간 6회를 출간하는 격월간(隔月刊)으로 확대되고 이중에 하나는 영문 논문을 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원중에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은 모두 10명을 불과 했으나 지금은 388명, 이중에 해외박사 만으로도 166명이나 된다.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했던 1963년에 해외에서 취득한 박사는 단 두사람 뿐이었다. 회원들의 전문분야를 보면, 시대의 요청에 따라 경제·도시지리 분야가 많았으나 지금은 이와 함께 지리교육, 문화·역사지리, 지형·기후학 등 비교적 다양한 방향으로 그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회의 모임은 춘·추 2회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발표되는 논문 편수는 1960년대에 연평균 약 7편이 고작이었다. 이것이 1990년대는 평균 28편, 그리고 2004년 한해에는 무려 105편이나 쇄되었다.¹⁶⁾ 따라서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수도 1960년대에 불과 21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각각 100여편 내외, 1990년대는 244편으로 급증하더니 새천년에 와서는 2000~2004년의 5개년 간에 무려 238편이 등재되었다. 엄청난 변혁이다. 이러한 역량이 결국 새천년에 들면서 「세계지리학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고 한국 지리학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결과로 승화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록들을 참작하여 대한지리학회 60년의 역사를 편이상 5개 시기로 편년을 시도했다. ① 창립과 혼돈기(1945~1959), ② 재건기(1960~1969), ③ 체제정비기(1970~1989), ④ 약진기(1990~1999), ⑤ 국제화시기(2000~)로 구분하였으나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역사란 완제품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① 광복이후 1950년대 까지는 생명의 탄생과 그 아픔을 참아야하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② 재건기는 전쟁의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는 재생의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학회지가 창간되고 춘·추학회가 열렸으며 한국이 IGU회원으로 가입한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의 장단으로 비유하자면 광복의 기쁨을 잃고 암중모색하던 인고의 세월을 「진양조」로 표현한다면,

1960년대의 학회 재건시기를 한서(漢書)의 독경 속도로 생각하여 「중모리」장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③ 1970~1980년대의 「체제정비기」는 춘·추학회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이고 학회지의 연2회 간행,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의 개최, 최초의 「한국지리」출판, 투고규정과 학회회칙의 수정 등 빠르지는 않으나 「중모리」보다는 빠른 속도로 착착 전진하던 시기로서 「중모리」장단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④ 1990년대를 대한지리학회의 「약진기」로 명명한 것은 회원수가 1980년대에 비해서 두배 이상이 증가했고, 5회의 학술토론회 및 학회의 법인화를 통해서 학회의 사회화가 진전되었을 뿐 아니라 학회지의 발간도 반년간(半年刊)에서 계간(季刊)내지 연5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 「세계지리학대회」의 유치를 계기로 1995년에는 학회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대규모로 열었고, 1996년에는 예행연습을 방불하는 국제적 심포지엄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실로 1990년대의 우리 학회는 「질풍노도」의 시대요, 정신없이 달리는 「휘모리」시대이었다. 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새천년에 거행된 「세계지리학대회」의 대성공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지리학이 이른바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선진 열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달리는 데는 학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단합된 격려와 참여가 큰 힘이고, 이미 타계하신 제1세대 지리학자들이 씨를 뿌리고 정성스레 가꾸어주신 공덕이 크다.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학회 발전의 외적·형식적 척도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리학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의·토론의 풍토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논문의 심사가 엄격하여야 한다. 학회지에 논문 한편 실어보지 못한 회원이 편집위원이 되거나 심사를 맡는 코메디는 있어서 안될 것이다. 또한, 학회지에 실는 서평은 책의 선전을 위한 서평이 아니고 본질적 의미의 서평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토론의 장으로서 글자 그대로의 서평(書評)이기 때문이다.

학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리학을 위한 좋은 지침서를 만들어 지리학에 취미를 갖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리학을 전공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세계지리학대회」에서 처

음 시작한 「지리올림피아드」는 금년에 6차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학회의 특별위원회와 부설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리학 시리즈, 세계지리 시리즈 등 전집류의 출판과 지리학사전의 출판, 내셔널·애틀라스의 제작 등의 사업이 착수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리학의 저변을 넓히고 전공자를 많이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심포지엄의 개최는 너무 빈번할 경우, 약발이 덜하지만 지리학의 사회적 참여와 지리학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다. 심포지엄의 주제가 대체로 그때 그때의 시사와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번쯤은 시사적 이슈와 관계없이 「지리학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장을 한번도 열어본 일이 없다.

차체에 두가지만 더 첨부하자. 하나는 학술원 조직에 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학회의 기록보존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명색이 학술원 인문분과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분과의 일원 내지 시너로 참여하고 있는 풀이지 지리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술원 인문 제3분과는 정원15명중에 지리학은 오직 1명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역사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문지리 분야 1명을 추천 의뢰하면서 내막적으로는 역사지리를 취택하는 연극을 하고 있다. 지리학이 독립하여 한 분과를 접하든지 아니면 제3분과 내에서 지리학의 몫을 더 할당 받든지, 학회는 학술원이나 교육부 당국을 설득해야 될 것이다.

금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깊이 고민한 것은 1990년대 이전의 기록이 학회에 전혀 보존되고 있지 않은 후진성 때문이었다. 적어도 회의록, 예산, 임원의 조직, 회원명부, 학술활동의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 마침 현 임원진에서 학회의 아카이브스(Archives)를 구축한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나 기대하여 볼만하다.

註

- 1) 김영성, 1989, 「한국대학 지리계 학과의 성장」 지리연구, 14, 34
- 2) 오산중학 출신의 독립지사로서 서울시 시사편찬위원이며 서

올사대 지리학과에서 역사지리학을 강의 하셨다.

- 3) 이때의「한국지리학연합회」는 영남지리학회, 호남지리학회를 가칭하여 만든 것으로(1959.2.10) 지리학 인구로 보아 실제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
- 4) 프랑스에서는 IGU 프랑스국가위원회 사무국장이 차기 프랑스 지리학회장으로 선출되는 관례가 있다.
- 5) 1974년 320명 등록 회원수 중에 회부 납부는 160명이었다.
- 6) 1994, 2000, 2002, 2004년에 간행된 회원명부의 서문에는 1987년 명부를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87년도 간행의 명부는 없다.
- 7)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는 많은 수가 석사과정 재학생인 경우이다.
- 8)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 제1호, pp.114~115, “학회 연혁과 근황” 참조
- 9) 전계서, p.114 및 대한지리학회보, 1996, 제50호, p.1참조
- 10) 당시의 간사중에 지금의 총무와 같은 역할을 홍시환 교수(건국대교수, 1999년 12월 30일 작고)가 맡으셨고, 간사중에 김연옥교수(전이화여대교수)가 유일하게 생존하여 계신다.
- 11) 북한이 가입하기 전에 서둘러 가입했다.
- 12) 발표자중에 이찬 교수와 이정면 교수는 그 당시 한국지리학계 최초로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아 귀국하였고, 발표논문은 각각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다.
- 13) 심포지움 제목은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고 발표는 3개 분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14) 당시에는 지리학의 전문학술지가 「대한지리학회지」뿐이므로 1960년대에 등재된 21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각 대학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아니면 등재를 포기한 경우이다.
- 15) 여기에서 춘·추학회에서의 구두 발표 논문 편수와 학회지 게재논문 편수의 상관관계에 구속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투고규정에는 등재 논문은 반드시 춘·추학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학회의 비회원이라도 논문에 따라서 게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 2000~2004년 동안 연평균 77편이 발표되었다.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 토론

토론자 : 공우석(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대한지리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6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형기주 교수님의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지리학회의 역사와 현황 등을 분석하고 학회 발전의 비전을 토의하였다. 대한지리학회(이하에서 학회로 표현)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찬사는 발제자가 자세히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고 본 토론자는 학회가 도약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안과 대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지리학회는 지난 60년간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질적 도약을 바탕으로 한 발전의 전환이 요구된다.

- 1) 연구 부문 : 28개의 지리학 관련 학과와 1,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학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리학은 전공 영역별(자연-인문-도구·방법론-지역연구)의 전문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리학의 종합과 학적 특징점을 활용하는 지리학자 사이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른 학문 분야와 차별화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 2) 학회지 : 학회지는 대외적으로는 학회의 얼굴이자 내부적으로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학회지를 통해 학문후속세대의 지리학에 대한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수박사학위 논문 외에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가운데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저술된 출판물 가운데 우수 저서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발표 논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논문 심사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 풀을 적극 활용하여 논문의 질적 제고와 심사의 공정성을 꾀해야 한다.
- 3) 학회 조직 : 학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

자들이 학회에 적극 참여하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여 이사회 중심으로 학회가 운영되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회지 논문 발표율, 학회 및 임원회 참여율, 학술대회 주관율 등 학회 발전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학회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학회의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4) 지리교육 :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지리교과과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교육 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문 연구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일선 지리 교사들을 위한 학회 차원에서 교육 혹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5) 사회적 기여와 영향력 확대 : 환경문제, 국토개발, 지역문제, 정보화 등에 대한 지리학자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리학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학술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유관 학회와 공동 개최하여 학제적 연구의 문호를 개방하여 지리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학회의 사회적 기여와 영향력 확대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6) 취약 분야 강화 : 지리학 전공자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통로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가 자격증, 국가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수험과목, 국가조사사업 혹은 국책사업에 지리 관련 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리학 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인력이 적은 영세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육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해외, 북한 등 지역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대한지리학회가 보유한 인적자원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개발하여 대·내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1) **회원 역량 규합** : 학교(학파) 간, 전공(자연-인문-도구 및 방법론) 간,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회원 간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적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한다. 특히 회장단 선거가 건실한 일꾼을 뽑는 자리에서 반목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전략하였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
- 2) **회원 활동** : 학회 내 학문 후속세대 논문 발표 등 활동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여 연구 활동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중진 회원들은 연구 및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회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회원들은 학회지 내실화를 통한 전문화와 동시에 지리학 관련 저서, 기고, 답사 및 연구모임 확대, 출연 등 지리학의 대중화를 도모해야 한다.
- 3) **학회 연합체** : 학회 단독 학술대회와 함께 지리학 관련 학회의 정보 공유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전에 도입되었던 지리학공동학회(한국지리학회)를 다시 도입하여 분과별로 동시에 발표를 실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 증진을 도모한다. 이를 바탕

으로 최종적으로 학회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4) **지리교육** : 지리학 후속 세대 육성의 교량 역할을 하는 지리 교사를 위한 학회 차원의 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 5) **회원 정보화** : 회원 명부 외에 회원들의 주된 연구 관심사와 참여하는 과제에 대한 웹상에 DB 구축을 통한 사회적 요구나 이슈에 부응하고, 회원 간 공동 연구 과제 개발 등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학회 차원 연구 사업은 이메일 등을 통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6) **저변 확대** : 지리학 인접 분야 전문가를 학회에 적극 영입하고 과감한 역할을 부여하여 지리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변화해야 한다.
- 학회를 주축으로 한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적 기여와 참여 활동은 지리학자 개인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리학의 사회적 역량을 확대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리학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기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이 요구된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 당당한 지리학도임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토론자 : 최무웅(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주년에 관한 주제발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촉박한 기간 동안 발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인 역시 발표원고를 늦게 받아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의 논문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구성되었다.

1. 머리말 2. 체제, 예산, 학회지 3. 회원수, 전공, 학위 4. 발표, 토론, 게재논문 1) 춘추 발표회와 지지편찬 2) 학술토론대회(심포지엄) 3) 게재논문 5. 맺는말

머리말 중 23페이지에서 발제자는 “필자는 이상과 같은 학회창립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의 발자취를 숫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저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으로 그 연구 범위는 “발표 범위는 학회 60년사 에 국한되고 학문 자체의 성격이나 질적 수준 등은 논외로 한다” 로 정하였다. 숫자로 보기위한 자료로는 “필자는 이 연구를 위해서 대한지리학회지 통권 108책과 회보 86회분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그리고 학회30주년과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간행된 유인

물 및 4회에 걸쳐 간행된 학회 회원명부가 유익하게 동원되었다. 이밖에 한국 제1세대 지리학자 중에 타계하신 분들의 후손이나 진지들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한 프로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으로 남기고저 한다면 충분한 자료 즉 제시한 것이 외에 학회 회무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참고 하여야하며 후손 누구를 인터뷰했는지 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발제자는 객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사고는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5페이지 “학회의 예산에 관해서는 옛날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가장 오래된 예산기록은 1987년.....”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체제나 예산을 다루고저 할 경우는 학회 회의록과 유인물 동일 것이다. 발제자의 성의 부족을 스스로 나타낸 주관적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발제자 역시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그 외 많은 분들이 회장과 임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자료를 문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발제자 스스로 취약점을 보였다. 그러므로 불충분한 자료로 기술한 것은 학회 60년을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었다.

학회명부가 7번에 걸쳐 발간된 것을 표3, 4, 5로 분류하였다. 회원에 대한 정보는 학회 발전의 양적 척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를 단순화하여 정리 분석한 것은 무리한 감이 있다. 명부에서 회원 1명이 몇 개의 전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분석이 요구된다. 29페이지에서 전공별 구분도 발제자 임의로 4분야로 묶어 구분한 것은 주관적 관점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학회 개최 시 발표한 논문의 수와 그 전공 영역 및 그 시대의 연구 흐름 등을 분석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는 발표 요약집이라고 생각한다. 발제자는 표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산술적 분석은 충분한 평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대한지리학회의 일부 공문으로 볼 때, 1984년도 추계학술 발표대회 개최정보 공문에서 논문초록제출요령은 홍순완 회장이 당시 회의에서 학회 사상 처음으로 자연, 인문을 구분 발표, 초록제출요

령은 토론자가 당시 연구부장으로 학회에 봉사할 때 제안해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것 등등이 구체적으로 숫자에 의해 서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주관적으로 기술한 것은 학회 60년을 후학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지편찬은 용역 사업이며 당시 특정계보의 인물로만 구성된 것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학회 발전을 기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발제자가 제시한 것 중 36페이지 첫 문장은 주관적 관점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본다. 과거는 심사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지만 90년대에 들어서서는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 안한 것이 심사규정이 까다로운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보가 약한 것이라고 본다. 굳이 예를 든다면 발표는 본인이 현재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주로 연구한다는 학문적 광고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전공과 잘 맞고 광고성이 강한 학회지에 게재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60년 역사의 자료 속에서 특정자료만 이용하여 기술한 것이 전체인 것처럼 기술한 것은 문제점 이라고 본다. 발제자가 제목과 목적, 범위에서 제시한 것을 충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로 분석한 것을 숫자로 연도별로 기술하고 발제자의 주관적 의견의 가미 없이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부터 학회 60년을 5단계로 결론에서 구분한 것은 논리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5 단계의 설명에서 발제자의 해박한 지식으로 한국음악 장단에 비유한 서술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40페이지 2번째 줄로부터 언급한 문장의 표현은 맺는말에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40페이지 위에서 7째 줄부터는 발제자의 연구목적에 맞지 않은 기술이므로 삭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의합니다.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이기 때문에 지정토론 자료써 신랄하게 토론을 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제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자 : 이은숙(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지리학전공 교수)

먼저 이 좋은 계절에 대한지리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발전과정을 회고하는 역사적 현장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목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그동안 학회발전에 기여하신 앞서 가신 스승님들도 간절하게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한 개인이 60세가 되면 그가 틀림없이 어려움을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갑이라는 이름으로 축하하여 주듯이, 오늘 대한지리학회의 환갑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학회의 놀라운 발전을 축하하며 동시에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발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학회의 성장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신 형기주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할애하신 이 자리가 토론의 자리이므로 제 생각에 이 분석에서 간과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한지리학회와 전문영역별 지리학회와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시고 계신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로 보신다면, 오늘 제시하신 계량치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섭의 관계라고 보신다면, 오늘의 분석에 다른 전문영역 지리학회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전문영역 지리학회가 우후죽순처럼 창립되었던 최근 10년여의 대한지리학회지 게재논문 수나, 학회 발표 논문 수는 다른 학회지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으로는 회원의 학술활동의 본질과,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형기주 교수님의 분석 결과가 대한지리학회의 양적인 성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을 기준으로 실질적 성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지리학 내부의 독자적 발전의 결과인지, 아니면 고등교육기회의 확산? 대학과 연구기관 증가, 인구증가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를 들어 같은 사회과학 영역이고, 대한지리학회와 같은 시기에 창립된 사회학과 비교해 볼 때에 그 학회의 회원 820명 가운데 대학전임교수가 약 350명, 연구원이 약 350명이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650명에 달하는 것, 또한 1983년에 창립된 지역학회 회원 300명 정도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250명, 대학 전임교수가 200명 정도라는 점에서도 지리학이 과연 발전을 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리학 교수는 절대 수에서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 규모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감소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01년 김영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가운데 지리학 교수의 점유율은 1965년 0.46%로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80년 0.59%를 피크로 하여 2000년 0.32% 라는 점을 보더라도 단순한 양적 증가를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교수 규모는 교육과 연구 성과를 가능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학문의 존재이유 중에는 하나는 사회적 적절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리학이 공간적 차원을 지녔다는 점에서 지리학의 사회적 적용을 위한 노력이 오늘날 대한지리학회의 계량적 성장만큼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기주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언제나 정치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제기된 문제의 다양한 대안들이 나온 후에 비로소 지리학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따라가 보려는 모습을 종종 드러내고 있는데, 진정으로 지적 의의를 가진 문제, 예를 들면 지명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과연 있었는지, 만일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동해, 독도와 같은 이슈들을 지리학계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입장에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원로 교수님으로서 지리학의 학문적 선배로서 회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리교육을 충실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 지리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간과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리학회 회원들 가운데 지리교육과 관련된 회원의 구성, 그들의 활동영역 등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지리학회 회원의 상당수가 지리교육 종사자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60년간의 변천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등학교에서 지리교과와 경쟁관계에 있는 역사교육 관계를 취급하는 역사교육연구회의 경우 회원 346명이 가입되어 있고, 이중 대학교수가 198명이며, 237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지리학회의 지리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에서 철저하게 간과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구구성이 남녀별로 되어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석에서 남녀

별 구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분석하셨다면 형기주 교수님께서 매우 진보적 사고를 하신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김영성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여성교수 임용은 전체 임용의 8.4%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늘날 재직중인 여교수비 역시 8.2%에 불과한데 이것은 지리학을 전공하는 여학생 비율에 비교하여 1/5미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교수비의 낮은 수준은 남성위주의 일반 학계 분위기와 사회적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학계의 여교수 비율이 8% 내외라고 하는 것은 전국대학 교수 중 여교수비 14%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분석에서 여 회원, 여 교수, 여 박사, 여 연구원, 여 교사, 여 석사, 여 대학원생 등의 점유율을 분석함으로써 지리학계에서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의 성찰을 촉구할 기회가 아닌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 : 권정화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학문이란 학자들의 사유의 지적 산물이지만, 사회 제도로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가에 따라 학문의 존재 양태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학회는 대학의 학과와 더불어 학문의 사회적 제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학자의 지식 생산이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학회의 운영과 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표자께서 양적 지표에 근거하여 학회 60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셔서 저 같은 후학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학회에 처음 참석하신 지도 50년이 되기 때문에 학회와 더불어 한 평생 살아오신 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하시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거리를 두기에는 다소 난처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질적 평가 대신에 양적 평가를 통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이해하면서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발표자의 전공이 주로 경제지리학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양적 접근을 하기에 적절한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적 접근이 규모와 외형에 치우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학회 예산 규모나 학회지 발간 실적의 연도별 추이, 회원수와 전공별 분포, 학위 취득 대학의 국적별 분포, 발표논문의 연도별 추이, 게재 논문수의 연도별 추이 등을 주요한 양적 지표로 선정하여 분석한 시도는 적절하였다고 봅니다. 아마도 다소 민감한 부분이어서 회원 주소의 공간적 분포 등은 언급을 회피하신 듯합니다. (표-5)전공별 회원 수 분포나 (표-8)시기별 전공별 학회지 발표논문수를 작성하면서 지역지리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학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리학자들이 어느 지역을 주로 많이 연구하였는지 지도화해 보아도 흥미로울 듯싶습니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학회 60년사를 ① 창립과 혼돈기(1945~1959), ② 재건기(1960~1969), ③ 체제정비기(1970~1989), ④ 약진기(1990~1999), ⑤ 국제화시기(2000~) 5개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경제지리학 등에서 익히 보았던 상품주기나 이윤주기 등에서 제시하는 도입기, 성숙기 등의 단계 구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과거 인식 방식은 복잡한 상황을 명료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는 훌륭합니다만, 현재를 전성기라고 가정해 놓고 분석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고와 반성을 하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정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전제한다면 그 다음 미래는 쇠퇴기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각 시기마다 학문 외적 상황과 내적 대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지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학회도 성장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지리 문화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접 분야 학회의 성장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평론가로서 지적합니다. 교직 이외에 고학력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전망을 학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 기관에 있는 회원들을 배려하자는 뜻입니다. 지리과 교수들만의 폐쇄적 학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었더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아무래도 통계 데이터의 외삽을 통한 예측만으로는 보여주기 힘들 듯 합니다. 상상력은 숫자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지요. 발표자께서는 평소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만큼 1시기에서 4시기까지를 국악 장단에 비유하여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로 표현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숫자라는 틀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후일을 기대해 봅니다.

토론자 : 전중환(충남대학교 마을공동체연구단 전임연구원)

이 글은 무엇보다 대한지리학회 60년의 산 증인으로 서 형기주 교수님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글이라는 점에서 그 60년사를 재현하는 생생함이 더하다고 봅니다. 이 논문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교수님께서도 맺음말에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학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학회의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연구 활동 경력과 학회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토론자로서 저의 형편은 매우 일천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외람되지만 저 나름대로 이 논문을 이해한 바와 그 밖의 다소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아시듯이 문자로 남긴 기록은 후대에 대단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더구나 숫자는 문자 이상으로 의미의 縮約性과 신속한 傳達力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사 중에서 <숫자로 본 대한지

리학회 60년>이라는 주제가 갖는 비중은 이어지는 나머지 두 개 주제의 세미나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후의 주제들이 논의될 때 평가와 토론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視點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논문을 통해 대한지리학회의 체제, 예산, 학회지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회원수, 전공, 학위 현황을 분석하셨고, 끝 부분에서는 연구 성과의 발표, 토론, 게재 논문 수의 추이에 대해 각각 시기 순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논문 작성을 위해 주로 활용한 자료는 <대한지리학회지> 통권 108책과 <대한지리학회보> 86회분, 기타 대한지리학회에서 발간한 기념행사 유인물과 회원명부였음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논문의 각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숫자로 집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

한 작업은 상당히 지루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요하는 오랜 단순작업을 통해서나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웬만한 열의가 없이는 중도에 쉽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논문의 말미에서는 대한지리학회 60년사의 요점을 매우 명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인고의 세월이었고, 한국전쟁 직후는 재생의 몸부림이었으며, 1960년대는 재건과 발전의 속도를 중모리 장단에 비유할 수 있고, 1970-80년대는 중중모리 장단에, 1990년대는 휘모리 장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 심사의 엄격성과 심사위원의 자격, 서평의 본질, 지리올림 피아드 개최가 지리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지는 의의 등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읽고 나서 느낀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분석 자료가 <대한지리학회지>와 <대한지리학회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되고, 두 번째는 전공 영역의 분류가 적절한가 하는 점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지리학의 연구 성과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세계지리학회대회>의 효과로서만이 아니라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석 자료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표 중에서 표 5와 표 8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전공별 회원수(표 5)의 경우는 한국의 지리학계에서 어떤 분야가 인기와 비중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고, 시기별/전공별 발표 논문 수(표 8)는 어떤 분야가 가장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분석의 근거를 대한지리학회에서 발행한 몇몇 자료들에 국한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의 최근 경향을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령 여전히 대한지리학회지는 한국의 지리학을 대변하는 학회지인 것이 분명하지만 2000년을 전후로 한 지금까지는 국내의 여러 지리학회지 중의 단지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본 행사가 기본적으로 대한지

리학회 60년 기념행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지리학회 자체의 행사를 넘어서 한국 지리학계 전체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장으로 삼아보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논문을 읽는 분들은 글에서 개진된 견해가 옹당 한국 지리학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라 믿지 대한지리학회지만을 살핀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정식으로 학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리학 단체들의 학술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리학의 하위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대한지리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빈도가 일부에 불과할 뿐 상당한 수의 연구 논문들을 자체의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무시한다면 표 8의 내용은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에 대해 마치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거나, 반대로 다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과 달리 연구가 매우 활발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분석 작업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보다 큰 의미를 놓치기보다는 해당 학회 측의 도움을 받거나 공동 작업을 통해서라도 모종의 방법을 강구하는 쪽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공 영역의 분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논문에서 표 5와 표 8의 전공 분류는 학회 30주년 기념 특집호에서 제시된 분류를 토대로 하되 그동안의 변화를 감안해서 약간의 첨삭을 가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은 첨삭을 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관광지리 분야를 신설하였고 사회지리학은 역사·문화지리 분야에 넣을 수도 있으나 ‘사회·경제사’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경제지리 분야에 포함시켰다”고 쓰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지리를 경제지리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화경관 연구에서 출발한 독일 사회지리학의 탄생과정이나 최근 유럽에서 사회·문화지리학회가가 조직되고 사회·문화지리학회지까지 창간된 것을 보면 사회지리학은 과거에나 현재 모두 문화지리학과 더 가까운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지리학에서 경제 현상을

다루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경제 현상의 경관적 표현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회지리를 문화?역사지리 쪽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구자의 규모나 게재 논문 수를 기준으로 관광지리와 사회지리를 비교할 때 '관광지리는 신설', '사회지리는 타 분야에 통합'이라는 판단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더구나 연구 참여자나 연구 성과가 매우 적은 정치지리나 학사?방법론 분야가 독립된 전공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지리도 별도의 전공으로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관광이라는 현상을 존재기본기능의 하나인 여가 행위로 간주하고 관광지리학을 사회지리학과 통합하여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회원수 증가나 논문으로 게재되는 연구 성과의 급증 현상에 대해 대체로 세계지리학회대의 성과로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토론자 또한 세계지리학회대회 개최의 의미와 그 성과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에 심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문 편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유형, 논문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 등에 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최근에 논문을 많이 게재한 연구자의 유형이 현직 교수인가, 시간강사인가, 연구소의 연구원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왜 연구물을 많이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비롯한 각 기관의 연구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

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각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 여하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논문 편수가 최근 들어 왜 증가하였는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한 또 하나의 요인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지리학회대회 개최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떼어서 정리해 두고, 이와는 별도로 최근의 논문 편수 증가에 대해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 전달력에 있어서 그 어떤 재현 방식보다도 명쾌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뜻하지 않은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숫자로 집계하는 작업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계 항목의 분류를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위해 교수님께서 고민하신 시간의 지루함과 집계하는 과정의 고됨을 논문의 곳곳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점에서 교수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천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제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문이 대한지리학회 60년사의 중요한 기록물로 남기를 바라고,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가 한국 지리학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